일본에는 회전문이 없다?



김 양 팽 의
일본 이야기

몇 년 전 호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필자는 호텔 입구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낯설다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전문 앞에 섰는데 왠지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워 가만히 바라보니, 회전문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 낯설게 느껴진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인지, 아니면 차량 통행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혼자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당장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 "다음에 일본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라고 짧은 추리는 마무리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북반구에 있으나, 차량 통행 방법은 한국과는 다르니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업무차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회전 방향을 확인하려 했던 회전문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짧은 일정이었기에 방문 기관이 많지도 않아 그러려니 생각하고 나의 궁금증은 다음에 해결하기로 했다. 그렇게 잊고 살다 의외의 곳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필자는 OTT를 통해 가끔 일본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본판으로 제작된 것을 발견했다. 워낙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안겨 준 드라마였기에 일본판은 어떻게 각색되었을까? 라는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청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판과 결정적으로 다른 장면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필자에게는 '유레카'를 외칠 정도의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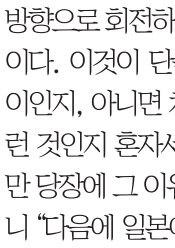
한국판에서는 주인공인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일본판에서는 주인공인 미나미다미나미(南田南)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어 리듬을 타고 진입하면 된다는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남자 주인공의 대사는 한국판과 일본판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회전문과 에스컬레이터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며 어색함을 느끼게 하였고, 드라마의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아니 '일본에 회전문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각색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드디어 나의 오래된 궁금증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의외로 답은 간단했다. 일본 회전문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섞여 있다고 한다. 회전 방향은 차량 통행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정해진 규칙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다. 그보다 일본에서 회전문을 찾기 어려웠던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2004년 3월 오사카에서 엄마와 함께 도쿄를 방문한 6세 남자아이가 롯폰기힐스 모리타워 정문 회전문에서 엄마보다 앞서 뛰어 들어가다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문을 멈추는 센서가 높이 135cm 이상인 물체에 반응하도록 높게 조정되어 있어 키가 작은 아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회전문이 유행이라 한때 도쿄에는 자동 회전문이 최소 260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전국의 회전문이 철거되거나 일반 문으로 바뀌었고 새 건물에서도 회전문을 잘 쓰지 않게 된 것이다.

드라마에서 회전문이 아닌 에스컬레이터가 등장한 것도 어쩌면 이러한 일본의 사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낯섦에서 시작된 사소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다 알게 된 슬픈 사연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AI 혁신 외치는 게임업계, 이용자 정보는 누가 지키나



기자 수첩
최 빛 나
〈IT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실행한 공식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용자의 PC를 위협했다. 최근 발생한 '승리의 여신: 니케' 보안 사고는 게임업계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개발 혁신과 비용 절감을 외치는 게임사들이 정작 이용자와 핵심 정보를 지킬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달 초 시프트업이 개발한 '니케'의 PC 런처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사 레벨인피니트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외부 공격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의 스크립트 파일을 변조했고, 10월 30일부터 악성 프로그램이 배포됐다. 운영사는 지난 4일 이상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섰다.

이용자가 신뢰한 공식 배포 경로가 공격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게임뿐 아니라 퍼블리셔와 외부 솔루션까지 연결된 서비스 구조에서 어느 한 곳의 보안 허점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보안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넷마블에서는 PC 게임 포털 회원 약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국내 인디게임 'TBH: 태스크바 히어로'도 외부 게임 서버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으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개발사까지 보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물론 이들 사고가 AI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되는 시대에 기존 보안 체계의 허점마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게임사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다. 개발자가 외부 생성형 AI에 미공개 신작의 소스코드나 기획서를 입력한다면 기업의 핵심 자산이 외부 서비스로 전달될 수 있다. AI 개발 도구를 사칭한 악성코드까지 등장하면서 개발 환경 자체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게임업계가 AI를 이야기할 때마다 앞세우는 것은 개발 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다. 정작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되는 정보는 어떻게 통제하는지,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은 누가 검증하는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AI 도입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혁신만큼 보안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게임을 믿고 개인정보와 시간, 돈을 맡긴다.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기술 혁신보다 앞서야 할 기본이다. AI로 게임을 더 빨리 만드는 것은 경쟁력이다. 그러나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자격이다. 게임업계가 증명해야 할 것은 AI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책임질 능력이다.

/vitn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음 10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60년생**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2년생** 성실한 사람과 사귀어 마음에 악을 지워야 합니다. **84년생** 여행도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49년생 큰 금전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세요. **61년생**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들어 번성할 길한 운입니다. **73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5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아 힘들어집니다.

50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62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74년생** 바른 마음을 유지하세요. **86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해서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1년생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63년생**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75년생** 귀인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87년생** 집안에 경사가 생깁니다.

52년생 항상 겸손하세요. **64년생** 동남방이 길한 방향입니다. **76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8년생** 현재 방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세요.

53년생 마음을 비우고 행동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아랫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7년생** 좋은 운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89년생** 초조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54년생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66년생** 주변과 호흡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잘 풀립니다. **78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90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5년생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67년생** 매우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9년생**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91년생** 동료와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56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년생** 과음은 금물입니다. **8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92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57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세요. **69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8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93년생** 이성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82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94년생** 대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니 만물이 번창할 것입니다.

59년생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1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3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95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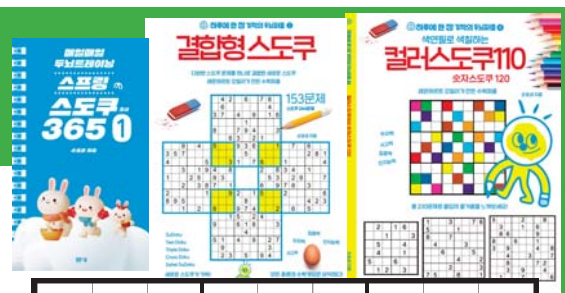
호신(護身)은 뜻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Sound body, sound mind)이라는 서양 속담도 있듯이 특히 현대에 와서는 신체만의 건강이 아닌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올라간다.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의 황제는 아니지만, AD 117년부터 138년까지의 로마 제국의 제14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은 날마다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결투를 보면서,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결투는 실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경기였지만 시민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검투사들의 몸에 더 열광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 팔과 배 근육을 키워 서로 누가 더 멋진가 자랑하는 일이 유행이었다는데, 미래를 위해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읽는 것보다 몸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 당시에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시인 유베날리스는 로마 젊은이들의 이런 모습을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에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글귀를 넣었다. 몸에만 집중하는 세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결부 짓는 일 외에도 고대로부터 여러 민족은 호신에 관한 전통적인 믿음들이 있어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에 작은 하마상을 넣곤 했는데 이는 새끼를 지킬 때 드러나는 하마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승 세계에서 망자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란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호신용 부적은 물론 상징으로 매와 호랑이를 그려 넣은 부적을 베갯속이나 몸에 지니고 문설주나 안방 방문 위 등등의 보이는 곳에도 부착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삿되고 위험한 기운을 방어하는 목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7	1	9		5
		1				4		
9								
6				8	9	2	3	
	7	9	5	3				4
								9
		5				6		
3		6	9	2	4		5	

5				8	9			3
			1	5				
		4			7	9		
8		3					5	
7	2						9	4
	1					2		7
		1	7			6		
				1	5			
2			8	4				1

8	5	7	4	2	9	6	1	3
2	4	6	7	1	3	5	9	8
9	1	3	5	6	8	2	4	7
4	8	1	6	3	5	9	7	2
6	9	5	2	4	7	3	8	1
7	3	2	9	8	1	4	5	6
1	2	8	3	9	4	7	6	5
3	7	4	8	5	6	1	2	9
5	6	9	1	7	2	8	3	4

2	3	9	6	4	8	5	7	1
6	8	7	2	1	5	3	4	9
4	5	1	7	9	3	6	2	8
9	1	5	4	6	8	2	3	7
8	4	3	9	2	7	1	5	6
1	6	4	3	5	2	9	8	7
3	9	8	1	5	4	7	6	2
5	7	2	6	8	9	4	1	3
7	2	6	5	3	1	8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